

# 바른 글쓰기

장경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서론

어떤 주제로 글을 쓰게 될 때 우리들은 좋은 글 내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글을 잘 써보려는 생각에서 어려운 어구나 절묘한 비유 등을 생각해 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가 글이 잘되지 않으면 글 쓰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글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을 멀리한다. 우리는 이러한 글 쓰기의 태도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잘 쓰려는 생각에 앞서 바르고 정확한 문장을 쓰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문장과 글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구성 법칙에 맞는 문장과 글을 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좋은 글, 효과적인 글, 감동적인 글 또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관찰해 보면 그러한 글은 모두 문법에 맞는 바른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 쓰기는 구성 성분들로 문장을 구성하는 작업과 문장들을 연결하여 글을 구성해 나가는 작업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문장 쓰기와 글쓰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장과 글의 구성 원리를 간략히 설명하고, 각각의 과정에서 틀리기 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글쓰기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바른 문장 쓰기

### 2.1. 국어의 문장 구조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구성 성분들로 구성되는데, 구조에 따라 단순문과 복합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문장이고, 복합문은 이러한 단순문이 모여 구성되는 문장이다.

#### 2.1.1. 단순문의 구조

단순문에도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충분한 문장이 있고, 목적어나 보어가 있어야 하는 문장도 있다. 문장의 구성성분에 따라 국어의 단순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 (1) a. 꽃이 핀다.  
b. 꽃이 아름답다.
- (2) 순이는 학생이다.
- (3)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 (4) 영수가 모자를 썼다.
- (5) 순이가 철호에게 책을 주었다.

(1)에서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구성되었지만 (2-3)에서는 보어가 있어야 하고 (4-5)에서는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1-5)의 문장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성분이 서술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장은 필수 성분 이외에 수식 성분을 지니는데, 사실이나 생각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려 할 때 우리는 수식어를 사용한다.

- (4') 영수가 황급히 새 모자를 썼다.

(4')에서는 (4)의 문장에 관형사와 부사를 넣음으로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문장의 구성 성분들은 일정한 순서를 지닌다. 국어는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오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구성된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수식어로 쓰이는 관형사나 부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나 동사의 앞에 놓인다.

국어의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은 명사나 동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장 성분들의 문법적인 기능은 조사와 어미로 표시된다. 조사는 명사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나타내 주며, 동사에 쓰이는 어미는 명제 내용 구성에 관여하는 시제, 사동과 피동 등의 내용을 나타내 준다.

### 2.1.2. 복합문 구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순문들이 모여 복합문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접속과 내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접속은 (6)에서와 같이 한 문장에 다른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고, 내포는 (7)에서와 같이 한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삽입되는 방법이다.

- (6) a. 순이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b. 밝은 추웠으나 안은 따뜻했다.  
 (7) a. 나는 순이가 떠나고 없음을 알았다.  
 b. 나는 순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국어에서 접속은 '-고, -며, -자' 등과 같은 접속 어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내포의 형식에는 관형사형 어미 '-ㄴ', '-르', 동명사형어미 '-음', '-기' 등이 있다.

이러한 접속과 내포에 의하여 문장이 확장되는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한 예로 공통되는 성분들의 생략을 들 수 있다.

- (8) a. 순이는 노래를 불렀다. 순이는 춤을 추었다.  
 b. 순이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9) a. 순이는 떠나고 없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b. 나는 순이가 떠나고 없음을 알았다.

(8-9)에서 보듯이, (a)의 두 문장이 접속과 내포의 방법으로 (b)의 한 문장이 되는 경우, 공통되는 주어, 목적어 등의 성분이나 시제 등이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2.2. 바른 문장을 쓰는 방법

바른 문장을 쓰는 것은 필수성분을 갖추어 순서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인데, 복합문의 경우에 구성 성분을 갖추지 못한다든지 호응관계, 존대법, 어휘 등의 용법이 잘못되는 일이 많다. 주변의 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문법적인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바른 문장을 쓰는 데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 2.2.1. 문장의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구성 성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는 불투명하다.

(11) 이 전쟁에서 다국적군과 첨단 무기들이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

(10)의 문장에는 서술어 '개통되-'에 대응되는 주어가 없고, (15)의 문장에는 '다국적군'의 서술어가 없다. 이 문장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10)은 '공사가 개통된다'는 내용이고, (11)은 '다국적군이 성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되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된다. '개통되-'의 주어로 '도로'를 써 넣고, '다국적군'의 서술어로 '얼마나 잘 싸우고'를 넣어 (10'-11')과 같이 고쳐 쓰면 타당한 의미를 지닌 문장이 된다.

(10')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는 불투명하다.

(11') 이 전쟁에서 **다국적군이 얼마나 잘 싸우고** 첨단 무기들이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

다음의 (12-13)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의 생략이 문장의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12) 45년 동안 넘어서지 못한 곳을 오늘 넘어와 보니, 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는 더 쉽게**

(13) 고르비의 신사고와 불간섭 선언이 없었더라면 동독의 무혈민주혁명도, 통일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독일의 통일도**

(14) 서울의 강남 상권이 지금 안산시의 현대쇼핑센터서 확실한 새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국어연구소 1989 : 242)

(12)에서는 후행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13)은 동독이 통일을 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들 문장에 관형어와 부사어를 보충하여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고쳐 쓰면 문장의 내용이 분명해진다. (14)의 문장은 ‘강남의 상권이’에 대응되는 서술어를 추론하여 보충할 수도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장의 구성 성분을 갖추어 쓰지 않으면, 글쓴이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성분을 갖추어 쓰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 2.2.2. 문장 성분의 순서

국어는 문장 구성 성분들의 순서가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로 분류되고 있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 구어에서는 서술어가 맨 앞에 쓰일 수도 있다. 영어 등의 언어에 비한다면 국어는 문장의 순서가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도 문장 성분들의 순서가 바른 문장 구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관형사는 명사 앞에 오지 않으며, 조사와 어미는 명사와 동사 앞에 와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수식어와 수

식을 받는 말 등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의미 파악이 어려운 문장이 된다.

(15) 일이 그런 식으로 몰려와서 항의한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타일러서 돌려 보냈다. → 그런 식으로 몰려와서 항의한다고 일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16) 자기는 정신병자이며 **마약**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처지라고 → 자기는 정신병자이며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원에서 마약 탈출한 처지라고

(15-16)의 문장들은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동사 등이 멀리 떨어져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고쳐 쓰면 의미가 쉽게 파악된다.

### 2.2.3. 문장 성분 사이의 의미 호응

문장을 구성 성분 사이의 통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호응관계도 바르게 써야 한다.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또는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의미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장은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비문법적이 되어 버린다.

(17) **적자**는 당분간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 적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18)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예방 접종을 맞도록** 당부했습니다. → 예방접종을 하도록

(19) **문제**는 그가 계층적으로 조선의 기층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여전히 유사한 특권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 것이다.

(17)의 주어 '적자'와 서술어 '나빠지다', 그리고 (18)의 목적어 '예방접종'과 서술어 '맞도록', 그리고 (19)의 '문제'와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는 의미

적으로 적절히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17-19)에서 적절한 호응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밖에도 앞의 (10-11)에서와 같이 문장이 구성성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도 부적절한 호응관계를 유발시킨다. 문장을 구성할 때 낱말의 선택이나 문장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잘못을 피할 수 있다.

#### 2.2.4. 조사와 어미

국어의 문장은 명사에는 조사가 연결되고 동사에는 어미가 붙어 구성된다. 조사에는 격조사 이외에 특수조사가 있으며, 동사에 붙는 어미에는 시제, 존대법, 피동법, 사동법 등을 구성하는 어미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거나 종결하는 기능을 지닌 어미도 있는데, 이러한 조사와 어미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경우도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불필요한 조사가 첨가된다든지 조사가 잘못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 (20) a. 일본**과**의 수교를 할 의향을 갖고 있는데 → 일본**과** (장경희 외 1991:46)
- b. 비좁은 화장실에는 일을 보려는 사람들**로** 10여m나 늘어서 있다.  
→ 사람들**이** (장경희 외 1991: 54)
- c. 만약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한다면 호환성**은** 뛰어난 HP 기종을 권하고 싶다. → 호환성**이** (장경희 외 1991:42)

(20a)에서는 조사 '의'가 불필요하게 첨가되었고, (b)에서는 '사람들'은 '늘어서 있다'의 주어인데 주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특수조사 '-은'은 '대조', '화제 표시'의 기능을 지니는데 (20c)의 '호환성'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20)의 조사를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써서 바른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다음의 (21)에서는 접속어미와 종결어미가 잘못 쓰이고 있다.

- (21) a.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상경한 서울은 수도로서의 위풍을 갖추고 어린 소년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 갖추고 있어 (장경희 외 1991:58)
- b. 일손을 구하지 못해 콤바인을 빌려 쓰고 있으며 콤바인 사용료도 40%나 올라 어려움이 많다. → 있는데 (장경희 외 1991:58)
- (22) a. 올해도 **건강하세요.** →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b. 올 한해 더욱 **행복하세요.** → 올 한해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23) 목돈을 마련하기에 **알맞는** 예금 → 알맞은 (국어연구소 1989 : 46)

접속어미 '-고'는 (21)의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충분히 나타내 주지 못한다. 오른쪽과 같이 고쳐 쓰면 사건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22)에서는 형용사에 명령형 어미를 붙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고, (23)에서는, 관계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는 관형사형어미로 '-은'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는'이 사용되었다. 화살표 오른쪽에 적은 것과 같은 바른 형식을 써야 한다.

### 2.2.5. 능동과 피동

국어의 피동 구문은 동사에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다, 지다, 당하다' 등의 피동성 어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국어 문장 작성시에 피동 구문과 관련된 오류는 피동의 형식을 중복하여 사용한 데서 주로 발생한다.

- (24) a. 그 약은 군살을 빼는 데 **애용되어져** 왔다. → 애용되어 왔다.
- b. 순이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보입니다.
- c. 5백여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거나** 쓰러져 있었다. → **뽑히거나**

(24a)에는 피동성 어휘 '되다'와 '지다'가 중복하여 쓰였고 (24b, c)에서도 피동접미사 '-이-', '-히-'가 결합된 '보이다', '뽑히다'에 피동성 어휘 '지다'가 붙어 있다. 이러한 피동 표현들은 국어의 바른 문장 구성이 아니므로 화살표



오른쪽과 같은 형식을 써야 한다.

피동법이 이외에도, '-하게 하다'의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시키다'가 (25)에서와 같이 사동이 아닌 내용에 쓰이는 일도 있고 (26)에서와 같이 피동문을 써야 할 곳에 능동문이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오른쪽과 같은 형식으로 바르게 써야 한다.

(25)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 **소개해**

(26) 혼인의 신고는 ...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민법 813조) → **위반됨이**(박갑수 1994: 480)

## 2.2.6. 존대법

국어에는 문법 범주에 존대법이 존재하는데, 주체존대법 '-시-'가 잘못 쓰이는 일이 많다. 존대의 대상에 대하여 '-시-'가 사용되지 않는가 하면 존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사물, 현상 등에 '-시-'가 사용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든다.

- (27) a. 보신 신문명과 날짜를 엽서에 적어 **보내면** '심장 질환 치료'에 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국어연구소 1989 : 223) → **보내시면**  
 b.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국어연구소 1989: 225) → **함께 하기를**  
 c.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귀여운 **동생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까?**  
 →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까?** 그리고 귀여운 동생들도 **잘 있는지요?**

(27a)에서는 '보내면'에 주체존대법 '-시-'를 사용해야 하고 (b)에서는 '건강과 행복'이 존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쓰지 말아야 한다. (c)에서는 존대를 표시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존대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화살표 오른쪽에 보인 바와 같이 문장을 나누면, 바르게 쓸 수 있다.

## 2.2.7. 문장의 명료성

문법적으로 맞는 글을 썼는데도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는 무슨 내용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도 있다. 문법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일 이외에도 문장이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일도 중요한데, 명료한 문장을 쓰는 데 주의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의적인 구조를 피해야 한다.

(28)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정신과 육체를 사랑합니다.

(28)에서 '아름다운'이 '정신'만을 수식하는 것인지, '정신'과 '육체'를 모두 수식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정신만이 아름답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28)과 같은 중의적인 문장 구성을 피해야 한다.

명료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의 선택도 큰 역할을 한다. (29)의 문장에서는 정확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이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맥락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29) a. 국제화 **경쟁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국제 **경쟁** 시대(국어연구소 1989 :80)
- b.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 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 **교수**들을 (국어연구소 1989 : 79 )
- d. 바둑 애호가들은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일반에는** 비교적 생소했다. → **일반인에게**는 (장경희 외 1991:50)
- e. 이치키 히로시도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유명세**를 떨치며 정상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이름**을 떨치며,(국어연구소 1989: 316~317)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의도한 내용을 가능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이나 길고 복잡한 수식어를 지닌 문장은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문장이 길이 자체도 너무 길면 글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장의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한 번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면 좀더 다듬어 고쳐 쓰도록 해야 한다.

(30) 같지 않고 토막토막 잘려 나오는 모양이 흡사 올챙이 같대서 올챙이 목이라고 말만 한다지만, 그다지 좋은 이름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 이름은 아닌 것 같다.(국어연구소 1989: 293~294)

(30)에서는 부정 표현이 길게 늘어져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화살표 오른쪽에 적은 것과 같이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면 뜻이 분명해진다. (31-32)의 문장들은 수식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 가운데 (32)는 문장의 길이도 너무 길다.

(31) 동문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助로 年會費를 비롯한 理事會費가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 농수산부 조남인 수의관은 현행 유통 구조의 문제점이 도살장·정육점에서의 부당 이득을 위한 과당 경쟁·부정 급수의 현장 적발의 어려움과 축산물 검사원의 근무 조건 등을 그 원인으로 꼽으면서 특히 수분 함량 기준을 설정하는 품종별·부위별·연령·영양 상태·비육 정도에 따른 육류 수준 함량의 기준치가 달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국어연구소 1989 : 234)

수식어구가 길고 복잡한 경우나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는 내용을 나누어서 2개나 3개의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쓸 수 있다. (31-32)의 문장을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면 명료한 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31) 年會費를 비롯한 理事會費가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 분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32) 농수산부 조남인 수의관은 현행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다. 도살장, 정육점에서 부당 이득을 위해 부정 급수하는 현장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과, 축산물 검사원의 근무 조건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품종, 부위, 연령, 영양 상태, 비육 정도에 따라 육류의 수분 함량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했다. (국어연구소 1989 : 234)

명료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유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항은 글을 쓰기 이전에 먼저 머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는 일이다. 생각이 정돈되지 않으면 글이 논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언어 표현들도 중복되고 정확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나아가 비문법적인 문장을 산출하기도 한다. 다음의 (33-37)의 문장들은 그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33)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미술부에 들어갔는데, 미술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해서 미술을 선택했고, 그것에 대해 아무 후회도 없고 너무 너무 미술을 사랑한다.
- (34) 문제 타결을 위해 정치인의 역할이 지금이야말로 더 요청되는 것이 국민의 기대이다.(국어연구소 1989: 294)
- (35) 효도하려고 노력했으나 결론적으로 보면 직접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손수 지어 드리지 못했고, 그토록 원하셨던 손자도 낳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36) 동서울의 마천루! “면목동” 용마산 기슭에 우뚝 솟은 “한신맨손 아파트”는 주변이 울창한 숲과 무수한 약수터로 망중한을 즐길 등산로와 산책길이 천혜의 자연 상태로 보존된 도시 속의 이상촌으로서 건립된 “한신 공영 아파트” 단지임. (국어연구소 1989 : 255)
- (37) 그것은 바로 삶의 부끄러움에 다름이 아니다. 삶이란 부끄러움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다면 졸업도 역시 하나의 부끄러움이다.

(33-37)의 문장에서는 글쓴이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 조리있게 표현되지 못하였고 (37)의 경우는 글쓴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도 알수 없는 난해한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글을 쓴 결과 생겨난 것이다.

### 3. 텍스트 구성하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는 한편의 글을 구성해 간다. 효과적인 좋은 글을 쓰려면 바른 문장 쓰기에서 나아가 텍스트 구성법을 알아야 한다. 주제를 지닌 문장의 연속체는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 구성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은 인접하는 문장과 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동시에 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총괄적인 연관을 지닌다. 인접 문장 사이의 상호 연관 관계가 '결속구조' 또는 '미시구조' 등으로 불리며 총괄적인 연관관계가 '주제구조' 또는 '거시구조' 등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두 구조를 지니지 못하는 문장 연속체는 텍스트를 구성하지 못한다. (38)의 문장들은 선 후행 문장이 서로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의 연속체가 텍스트를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39)에서는 인접하는 문장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총괄적인 연관인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지 못하여 텍스트를 구성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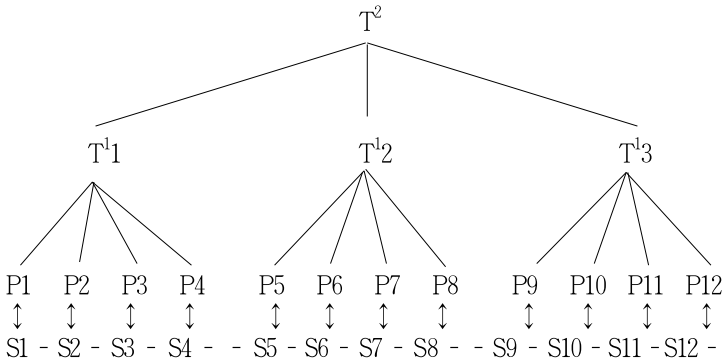
(38) 밤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영이가 주소를 적어 주었다. 김치 맛이 시어 밥을 먹지 못했다. 강아지가 짖는다.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 갔다. 차가 밀리고 있다.

(39) 나는 오늘 한양대학교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 한양대학교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그 학교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가끔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논다고 하였다. 어제는 비가

와서 운동장이 많이 짓어 있었다.

텍스트의 주제 구조는 다차원적인 계층구조를 지닌다. 문장의 내용인 명제들의 상관성을 근거로 하는 일차적인 주제가 존재하고, 이들 주제로부터 구성되는 보다 상위의 주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계층구조의 최상위의 층위에 글 전체의 주제가 존재한다. 단순한 글인 경우를 가정하고 이러한 텍스트 주제 구조를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0) 텍스트의 주제 구조(정시호 역 1995: 76 참조.)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텍스트는 표면상으로는 통사 의미적인 구성체인 문장(S)들의 선적인 배열로 되어 있다. 이들 문장의 내용인 명제(P)들의 상관관계에 의해 주제 T¹, T¹², T¹³가 형성되고 이들 주제를 근거로 형성된 글 전체의 주제 T²가 상위 층위에 존재하고 있다.1)

이상과 같이 텍스트는 인접 문장들 사이의 결속구조와 문장들의 내용을 총괄하는 차원의 주제 구조라는 두 가지 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편의 글을 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장과 문장이 결속관계를 지닐 수 있도록 연결

1) 명제의 차원부터 상위의 주제 형성의 차원까지는 모두 우리의 머리속에서 처리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문장의 차원과는 구분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문장의 내용이 상관성을 통하여 주제를 구성하는 일이다. 문장들이 어떻게 결속되며, 주제 구성에 어떤 특성이 중요한가를 보기로 한다.

### 3.2. 텍스트의 문장 결속의 방법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텍스트의 결속구조는 단어의 의미나 통사적인 기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sup>2)</sup>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결속구조는 흔히 ‘통사적인’ 결속구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국어에서는 결속의 형식으로 지시어 ‘이, 그, 저’를 포함한 지시표현이나 고유명사, 그밖에 일반 단어들이 사용된다.

- (41) a. 우리 옆집에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살고 계신다.  
       그분은 매일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신다.
- b. 순이는 일을 못한다. 그렇지만 아무도 개를 미워하지 않는다.
- c. 순이는 책을 샀다. 그것을 영호가 가져갔다.
- d. 순이는 매일 놀기만 한다. 그런 아이가 공부를 잘할 리가 없다.
- e. 내일 순이 집으로 와.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 f. 순이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철수는 춤을 추었다.
- (42) 순이는 오늘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순이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 (43) 나는 아침에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차는 머리를 맑게 해 주기 때문이다.
- (44) a. 순이가 사과를 사 왔다. 사람들이 과일을 먹으려고 모여들었다.

---

2) 복합문에서도 문장과 문장이 상관관계를 지니고 연결된다. 복합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1)의 문장의 결속과 독립된 문장 사이의 결속인 (2)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될 문제인데, 여기서는 텍스트 구성과 직접 관련되는 독립된 문장들의 결속 구조 형성의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 (1) 순이는 아파서 약을 먹었다.
- (2) 순이는 아팠다. 그래서 약을 먹었다.

- b. 순이가 과일을 사 왔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 c. 오래된 옷은 다 버렸다. 새옷을 사야겠다.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결속이 (41)에서는 ‘이, 그, 저’가 결합된 지시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42)에서는 고유명사로, (43)에서는 동일 단어의 반복으로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44)에서는 선행 문장의 단어에 대한 상위어와 하위어, 반대어 등이 결속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문장 사이의 결속은 지시표현이나 고유명사가 지니는 지시기능, 동일 단어의 반복, 단어 의미의 포함관계나 대립관계 등이 유발하는 재수용에 의존하여 형성된다. 재수용은 선행 문장의 내용이 동지시관계를 통하여 후행 문장에서 수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재수용에는 언어를 사용한 명시적인 재수용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함축적인 재수용이 있다. 앞의 (41-44)는 모두 명시적인 재수용의 경우이다(이성만 1994: 23).

다음의 (45)는 후행 문장에 선행 문장 내용을 재수용하는 어떤 표지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결속되고 있다. 이들은 함축적인 재수용의 경우이다.

- (45) a.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순이를 불렀어.
- b. 순이가 시장을 봐 왔다. 나는 사과를 하나 들고 나왔다.

(45)의 선 후행 문장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나 백과사전적인 지식에 의해 연관성을 부여한다. 그 결과 재수용 형식이 사용된 (45')에서와 같은 내용의 동지시 관계가 발생한다.<sup>4)</sup>

3) ‘이, 그, 저’가 결합된 지시어들은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에 모두 발달되어 있는데, 대명사 ‘이분, 그분, 저분, 이이, 그이, 저이, 이에, 그에, 저에, 여기, 거기, 저기’, 지시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지시동사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지시관형사 ‘이런, 그런, 저런’, 지시부사 ‘이리, 그리, 저리’ 등이 모두 결속 장치에 사용된다. 텍스트의 형식적인 결속장치로 음운론적 특성을 들기도 하지만) 일상언어에 널리 쓰이는 결속 형식으로 볼 수는 없다.

4) 인접 문장들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에 존재하는 사태나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사태 사이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 대상 사이의



- (45') a.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순이를 불렀어.  
 b. 순이가 시장을 봐 왔다. 나는 그 물건들 가운데서 사과를 하나 꺼내 들고 나왔다.

이상과 같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결속구조는 대부분이 재수용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텍스트 구성에서는 재수용의 방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선후행 문장 사이의 동지시 관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시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장들의 연결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 (46) 그러나 그의 이념의 완강하고도 지속적인 견지와 달리 그의 삶은 대단히 굴곡이 큰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그의 삶과 문학을 분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 (47) 대학졸업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졸업 소감을 쓰라니까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쉬운 말을 너무 길게 썼나 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무런 소감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학을 입학하는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는지 나는 아무런 의식을 못했다. **그것이** 어떠한 무게나 느낌을 가지는지도 알지 못했다. 마치 아무런 의식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그것**처럼 나는 **그렇게** 대학을 들어왔고 또 **그렇게** 졸업이라는 것을 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삶. **그것**에 다름 아니었다.

(46)에서는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47)에서도 '그것', '그렇게'가 가리키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앞의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이와 같은 지시 표현들은 결속구조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준다.

---

포함관계, 소유관계, 사건과 대상이 속한 세계의 연속성이나 근접성 등이 그러한 관계의 대표적인 예이다.(정시호 1995: 65)

### 3.3. 텍스트 주제 구성의 방법

앞에서 우리는 주제 구조가 다차원적인 계층구조를 지닌다고 하였다. 주제는 텍스트의 '중심 사상', 또는 '내용의 핵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이성만 역 1994:60),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글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글은 '무엇에 관하여 쓴 글이다'는 등의 말을 할 때 '어떤' 또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제의 개념에 근거할 때, 텍스트에는 단락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고 텍스트 전체의 주제도 있다. 이러한 텍스트 주제의 계층구조를 (48)의 텍스트를 통하여 직접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48) 나는 그해 겨울, 휴가를 산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전까지는 나는 휴가를 늘 바다로 갔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보다는 산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산의 공기는 건강에도 좋고 산은 다양한 모습을 지녀 지루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키를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찾고 같은 직장에서 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 전국의 산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목적지를 강원도 치악산으로 정하고 숙박시설을 조사하여 예약을 하였다. 집으로 오는 길에 스키 장비와 애들 옷을 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청량리 역으로 갔다. 형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역에 데려다 주셨다. 역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후 우리는 기차에 올랐다. 기차는 서서히 움직여 강원도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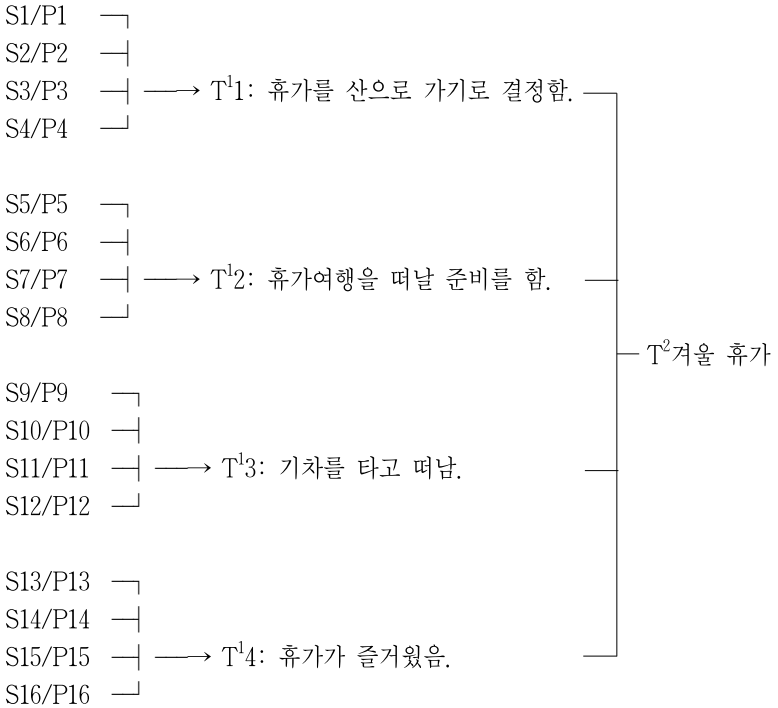
다음날 늦게야 우리는 호텔방에서 눈을 떴다. 바라다 보이는 산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눈과 더불어 덩굴고 눈 속에 묻혀 살았다. 산에는 눈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아이들 얼굴은 웃음꽃이 가득하였다. 산으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sup>5)</sup>

(48)은 4개의 단락을 지닌 텍스트인데 이들이 이루는 주제 구조는 다음과

5) 이 텍스트는 정시호 역(1995)에 제시된 예 (27)(p.60)과 예 (48)(p.88-90)을 참조하여 필자가 구성한 것이다.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8')



각 단락의 명제들이 모여 일차적으로 T<sup>1</sup>, T<sup>2</sup>, T<sup>3</sup>, T<sup>4</sup>라는 단락 주제를 형성하고 이들 주제를 총괄하는 보다 상위의 층위에 전체 글의 주제 T<sup>2</sup>가 있다.

이러한 주제구조는 문장을 써 나가는 구성 방식이 결속구조의 경우와는 다르다. 인접 문장들 간에 존재하는 결속구조는 선행 문장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을 후행 문장에 수용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는 구성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음에 이어가게 하는 데 중점이 있다. 그러나 주제 구조는 이러한 결속구조의 결속력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전개하여 가는데 중점은 둔다. 주제 구성은 명제들의 산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그 보다는 추상적인 상위의 명제나 추상의 개념 등을 형상화하거나, 대상이나 사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주제를 전개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글쓰기의 방법인 기술, 서사, 설명, 논증 등의 방법과 이들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예시, 분류, 정의, 비교 등의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프라그 학파의 주제 전개 모형도 텍스트 전개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제는 형상화되며, 주제 구조가 수립된다.

주제 구성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일 주제를 구성하는 일이다. 주제는 흔히 단일성, 통일성, 일관성, 논리성 등의 관점에서 설명되는데, 이들 특성 가운데, 논리성, 일관성, 통일성 등은 텍스트 주제의 전개 과정에 관한 특성이고, 주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단일성이다. 단락의 주제이건 전체의 글의 주제이건 주제는 단일한 것이어야 한다. 텍스트가 단일한 주제를 구성하지 못하면, 좋은 텍스트, 좋은 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특히 텍스트의 단락 구성에서 단일 주제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수의 주제를 지녀 단일 주제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는 단락을 나누어 구성해야 한다.

(49)의 단락 텍스트도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49) 그는 아침 일찍부터 등산 길을 떠났다.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시외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내렸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같이 가기로 약속한 그미를 찾았다. 그미는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시외 버스를 타고 도봉산 입구에 내린 그들은 나란히 걸으면서 산등성이로 돌아 들었다. 길이 점점 가파라지자 뒤에 따라오던 그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래도 그들은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한발 한발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이렇게 등산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이 접근해 갔다. <서정수 1983: 247>

서정수(1993: 248)에서는 (49)의 주제를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주제를 구성하려면 (49)는 고쳐 써야 한다.

(49)에는 '등산 준비'와 '등산의 진행 과정', '애정의 싹틈' 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하나의 단락에 들어 있다. 글쓴이가 이들 세 가지를 모두 나타내려고 한다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글을 써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쓰면 좋을 것 같다.

먼저 세 가지 내용이 모두 주제가 되도록 글을 써 보기로 한다.

(50) 그는 아침 일찍부터 등산 준비를 서둘렀다. 여느 날과는 달리 등산 도구를 치밀하게 챙겼고 등산복도 입고 등산화를 신었다. 창문을 열어 하늘을 쳐다 보고 날씨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자를 몇 번이나 고쳐 썼다. 저녁에 준비해 둔 도시락과 과일도 빠짐없이 넣었다.

택시로 시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같이 가기로 약속한 그미를 찾았다. 그미는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승차 표지판 앞에 그녀가 먼저 멈춰 섰다.

시외 버스를 타고 도봉산 입구에 내린 그들은 나란히 걸으면서 산등성이로 돌아 들었다. 길이 점점 가파라지자 뒤에 따라오던 그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여기 저기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보였으나 그들은 쉬지 않고 나아갔다. 그미의 앞에서 걸으며 그는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위에 오르고 풀꽃을 보면서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산을 오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유난히 밝고 고운 초록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람은 포근하고 향기로웠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외로이 산을 오를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마음 속에서 솟아 오르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위의 글에서는 ‘등산 준비’, ‘등산의 진행’, ‘애정의 싹틈’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각각 독립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등산의 진행은 ‘버스 정류장에서의 만남’과 ‘산에 오름’이라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쓰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된 (49)의 글보다 단락의 주제가 분명해진다.

처음에 제시한 (49)의 문장을 두 단락으로 고쳐 써 보자. 어떤 내용을 제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등산 준비'를 전체 글의 내용에서 제외한다면 (49)의 첫째와 둘째 문장을 수식절로 바꾸어 (51)과 같이 쓸 수도 있고, 등산 준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버리고 (52)와 같이 쓸 수도 있다.

(51) 아침 일찍 서둘러 등산 준비를 하고 시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는 두리번거리며 그미를 찾았다. 그미는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승차 표지판 앞에 그녀가 먼저 멈춰섰다.

시외 버스를 타고 도봉산 입구에 내린 그들은 나란히 걸으면서 산등성이로 돌아 들었다. 길이 점점 가파라지자 뒤에 따라오던 그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여기 저기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보였으나 그들은 쉬지 않고 나아갔다. 그미의 앞에서 걸으며 그는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위에 오르고 풀꽃을 보면서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산을 오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유난히 밝고 고운 초록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람은 포근하고 향기로웠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외로이 산을 오를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마음 속에서 솟아 오르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52) 택시로 시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함께 등산하기로 한 그미를 찾았다. 그미는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승차 표지판 앞에 그녀가 먼저 멈춰섰다.

시외 버스를 타고 도봉산 입구에 내린 그들은 나란히 걸으면서 산등성이로 돌아 들었다. 길이 점점 가파라지자 뒤에 따라오던 그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여기 저기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보였으나 그들은 쉬지 않고 나아갔다. 그미의 앞에서 걸으며 그는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위에 오르고 풀꽃을 보면서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산을 오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유난히 밝고 고운 초록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람은 포근하고 향기로웠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외로이 산을 오를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마음 속에서 솟아 오르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51)과 (52)의 글도 (49)보다는 글쓰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한 글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있다든지 하나의 단락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단일 주제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는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용에 맞추어 단락을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 고쳐 쓰면서 단일 주제를 구성해 가야 한다.

#### 4. 결론

글 쓰기 과정을 문장 구성과 텍스트 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문장 구성에서는 문장의 성분 갖추기, 문장의 성분 사이의 의미 호응, 능동과 피동, 존대법을 중심으로 국어의 문법적인 문장 구성시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법성 못지 않게 중요한 명료한 문장을 쓰기 전략을 점검하였다.

텍스트 단위의 글쓰기에서는 텍스트의 문장들 사이의 결속구조와 명제간의 총괄적인 주제 구조의 존재 및 이들의 구성법을 살펴보았다. 단어의 기능과 의미를 통하여 구성되는 텍스트의 결속구조는 동지시관계를 통한 재수용으로 결속력을 형성하게 되므로, 텍스트 구성시에 동지시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장들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제 구성에서는 주제의 본질이 단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단락 텍스트 구성이나 전체 텍스트 구성시에 모두 단일한 주제를 구성하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서나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글은 언어학적인 구성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법적이고 명료한 문장 쓰기에서는 문장 구성에 앞서 생각이 정리되고 다듬어져야 함을 보았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에서도 여러 개의 명제로 하나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능력이 절대적인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르케.
- 국어연구소(1989). 『국어오용 사례집』. 서울: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 김기중(1996). 『글월론』 - 언론문장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반도.
- 박갑수(1994). 『올바른 언어 생활』. 서울: 한샘출판사.
- 박영순(1998). 『한국어 문법 교육론』. 서울: 박이정.
- 서정수(1993).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서울: 한강문화사.
- 이성만(역)(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K. Brinker, *Linguistische Textanalyse*, 1992.). 서울 : 한국문화사.
- 장경희 외 8인(1991). 『신문·잡지·방송의 국어 오용 사례 조사보고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
- 정시호(역)(1995). 『텍스트학』(T.A. Van Dijk, *Tertwissenshaft*, 1980). 서울 : 민음사.
- 한양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1993). 『글과 생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